

여성인구변동과 노동시장

장 지 연*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취업구조, 인구학적 요인, 노동력공급행태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I. 문제제기

여성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1960년대 이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어수봉 1991, 정진화 1991, 김태홍 1993).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여성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를 축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노동력 수요 측면의 변화와 출산율의 저하와 취업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 노동력 공급 측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불연속적이다. 역 U자형의 패턴을 보이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초에도 M자형 (또는 쌍봉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여성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 취업구조 면에서도 혼인상태 또는 연령계층에 따라 여성노동자가 취업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가 현저히 달라진다. 미혼 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사무직, 생산직에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혼 여성의 경우는 농림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여성노동시장을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되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앞서 밝힌 기존 연구의 성과를 더욱 정교하게 하려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난 30여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구구성의 변화’와 ‘개별 인구집단의 노동공급행태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시장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여성의 교육, 결혼, 출산에 있어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분석을 위하여서는 인구구성의 변화의 영향(population composition effect)과 노동공급행태의 변화(또는, 행위의 변화 behavioral change)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¹⁾

1)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인구구성의 변화의 영향과 행위양식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론적인 것으로서, 인구구성의 변화와 행위양식의 변화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자녀 가족이 보편화된다는 것이나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즉 규범의 변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행위의 변화도 초래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참여 여부와 같은 행위양식의 변화는 출산행위에

노동공급형태의 변화는 개인들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인구구성의 효과는 같은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예를 들어, 기혼여성, 고학력 여성, 유자녀 여성 등)의 노동력 공급형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구의 구성이 변하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출산력 감소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는 적은 수의 자녀를 둔 여성이 많아져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구구성의 변화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같은 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증가된 점은 어느 정도인지, 자녀 출산과 양육 시기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은 변화하지 않았는지 등 노동력공급형태의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다.

노동력공급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회에 걸쳐 모아진 개인수준의 자료(individual-level data)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취하지 못하였고, 대신 ‘인구구성의 변화’와 ‘노동력공급형태의 변화’라는 개념적 구분을 견지하면서, 기존에 출판되어 일반에 공개된 집합적 수준의 통계자료(grouped data)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별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 분석과제는 최근 1년 여 기간 동안의 여성노동시장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포착하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 실업의 증가, 고용상태의 변화 등 노동시장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구조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시간의 결정이라는 노동력 공급의 측면 뿐 아니라 다른 한 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인구구성의 영향과 행위양식의 변화의 영향을 분리해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자료와 분석방법의 한계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이 통제(control)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개인자료(individual level data)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력의 영향과 혼인상태의 영향을 분리해 낸다는 것은 어렵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 것은 행위양식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집단 내에 고학력여성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으로는 산업의 구조와 경기변동 등에 따른 노동력 수요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 받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는 서비스직 확대 등 산업구조의 변동과 임금률 인상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지원한다고 여겨질 만한 추세가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호황과 불황의 순환은 있는 것인데, 이때 여성노동력은 남성 노동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여성노동시장이 남성노동시장과 어떻게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포착함으로써, 인구학적 요인으로, 즉 노동의 공급측 요인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변동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보완된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출산력 감소, 만혼 추세, 교육수준 향상이라는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가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즉,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의 패턴이 M자형을 보이는 것은 많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문제 때문에 고용이 단절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이러한 연령별 행위양식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초혼연령의 상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계속 증가해 온 것이 추세이지만, 최근 IMF 구제금융시기의 경기불황과 경제구조조정의 여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여성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특히 변화의 추세를 추적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책(자료집)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개된 통계들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연보(각 년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여성개발원의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1986)와 여성통계연보(1997), 통계청의 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의 변화(1994)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최근 경기불황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의 경제활동조사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통계지표를 이용하다보니 표가 제시하는 몇 가지 변수들간의 관계 이외에 필요한 충분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 즉, 개인 수준의 통계자료(individual-level data)를 이용하여, 주변적인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의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해석상에 무리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I. 장기간에 걸친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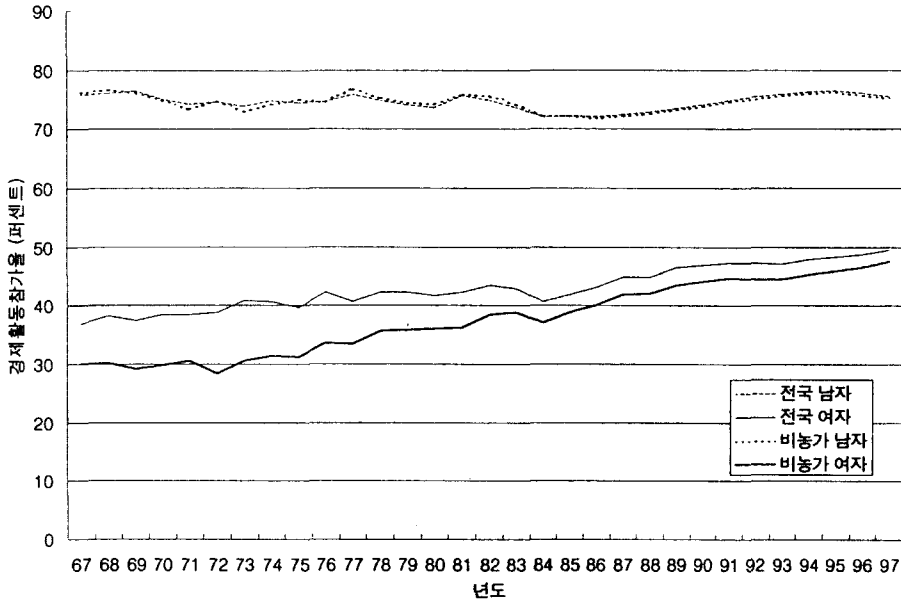
1. 이론적 논의

지난 30년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변화 없이 70 퍼센트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비농가 여성의 경우는 약 30 퍼센트에서 50 퍼센트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2-1). 이러한 추세와 관련이 있음직한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출산력의 감소, 만혼 추세, 교육수준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육아가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들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규칙은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²⁾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Nakamura and Nakamura 1991). 이 이론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비용을 수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Becker 1960, 1965).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의 시간

2) 유보임금 또는 의중임금은 개인이 기꺼이 일을 하려고 할 만큼의 임금, 즉 의중에 두고 있는 임금 수준이다. 시장제안임금은 개인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의 기회비용이다 (Schultz 1974).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취업여성의 “순 시장임금(net market wage)”이 된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금은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Connolly 1992, Blau and Robins 1988, Klerman and Leibowitz 1990, Heckman 1974). 한편, 출산은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이나 교육의 단절은 인적자본의 마모(감가상각)로 시장임금을 감소시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줄인다 (Mincer 1993). 이와 같은 출산과 경제활동참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난 30년간 출산력의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여길 만 하다.³⁾

결혼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의 가중화를 의미하므로 출산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은 또한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경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이후의 경제

활동 참가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경제활동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후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높인다. 첫째, 취업 경험 자체가 직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이라는 형태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한다. 따라서 오랜 취업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기회비용이 그렇지 않은 여성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둘째, 과거 취업의 경험은 임금노동에 대한 취향이나 견해를 바꾼다. 즉, 임금노동 경험은 노동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성향을 심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이 중산층 여성에 비해서 여성의 자녀 양육 역할과 사회적 노동 참여에 대하여 비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들 저소득층 여성의 대부분이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Dewit 1992).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신고전경제학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이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은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screening device"로 쓰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고학력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의 의사결정은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적인 설명을 취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성평등적 가치관과 경제적 독립성의 가치를 배우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교육이 경제활동참여를 향상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한 예는 교육효과의 생애주기와의 상호작용이다. 고학력 여성은 어린 자녀를 키우

-
- 3) 출산과 경제활동 간의 인과적인 관계의 방향성, 즉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출산력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들은 경제활동여부를 설명변수로 두며, 반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종속변수로 두는 연구들은 출산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킨다 (Heckman 1974; Heckman and Willis 1977). 한편, 두 변수 사이에 뚜렷한 인과적인 모형을 설정하는데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상호 관련성만을 가정하는 구조모형을 쓴다 (Cain and Dooly 1976; Fleicher and Rhodes 1979; Schultz 1978). 여성은 미래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출산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는 가정하에 이전의 출산이 현재의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환적인 모델을 설정하기도 한다 (Hout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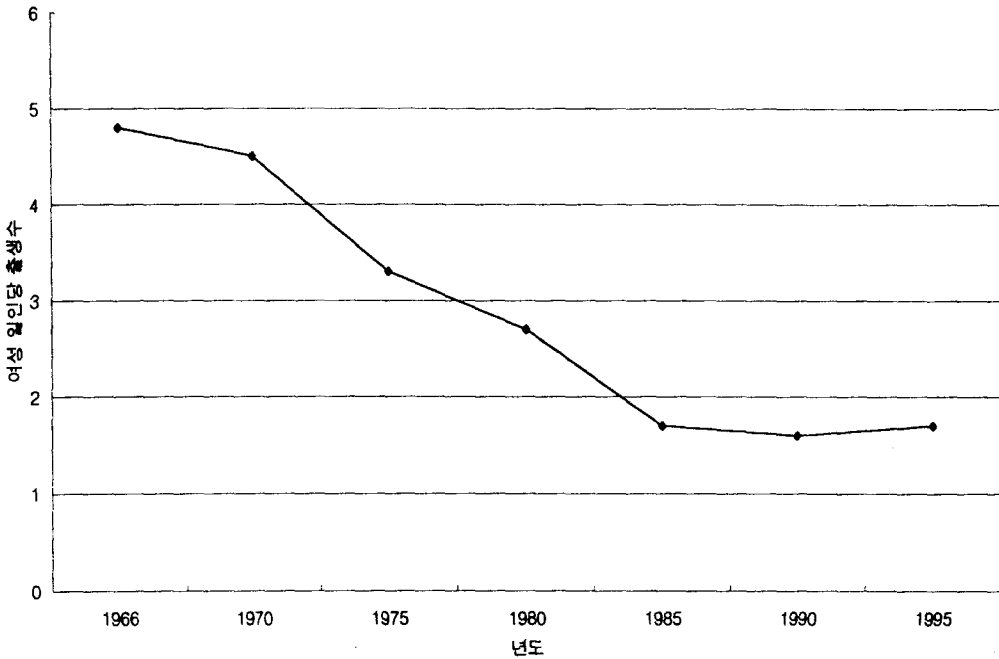
고 있는 시기에 많은 교육을 덜 받은 여성들 보다도 경제활동에 덜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Leibowitz 1975; Moen 1985; Sweet 1973).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교육이 임금노동에서의 생산성보다 가정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거나 (Lehrer and Nerlove 1986), 고학력 여성일수록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이 경제활동참여와 정의 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소득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데 다른 가족구성원(특히, 남편)의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출산과 경제활동

합계출산율은 1965년에 여성 일인당 4.8명의 자녀를 낳던 것에서 1985년에는 1.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처음 20년은 출산력의 극적 감소로 특징 지워지는 기간이며, 최근 10년은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을 훨씬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서 출산력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2-2).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출산력 변화만을 놓고 볼 때,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은 출산율의 감소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 시킨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출산이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미미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⁴⁾

4) 집합적인 수준의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출산력의 감소가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출산력이 급속히 감소하는 시기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첫째, 출산력 이외에 다른 요인의 작용 때문이고, 둘째는 출산력이 작용하는 방식도 단순히 합계출산력(cohort completed fertility) 뿐 아니라 출산연령과 출산터울(birth interval) 등 출산의 시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Ryder(196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출산력(period fertility)의 급속한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감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 때의 출산력 증가가 여성 일인당 자녀수의 변화가 아니라 출산시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합계출산력을 가지고 보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합계출산력은 실제 여성이 출산을 모두 마치기를 기다려 측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출산력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여성이 이러한 출산 스케줄을 따라 자녀를 낳는다면 일생을 통하여 몇 명의 자녀를 낳겠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러므로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3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비교적 긴 출산터울을 두고 30대 후반의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그림 2-2)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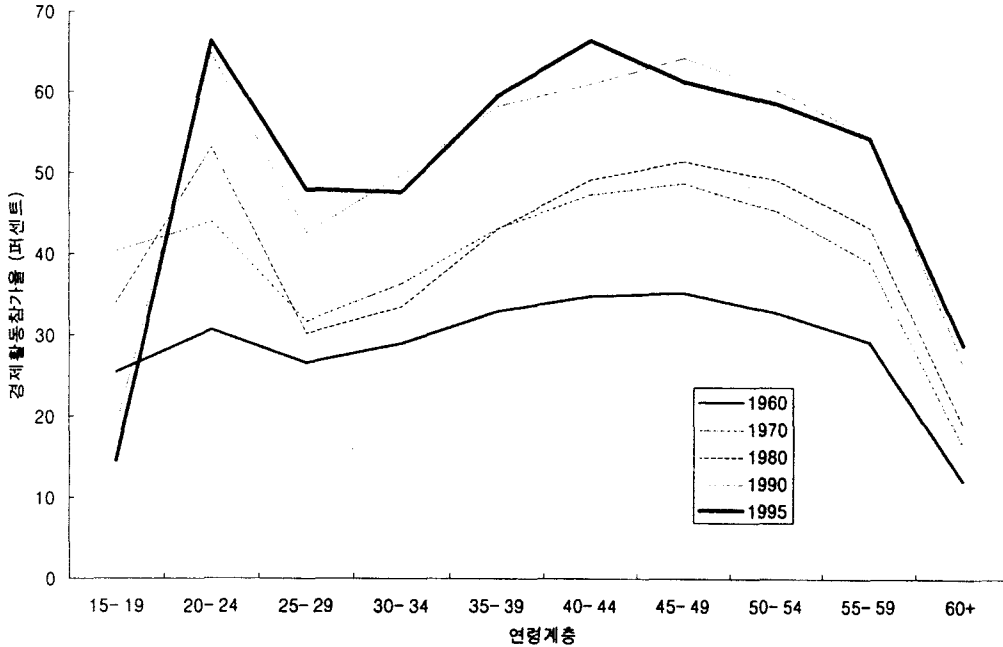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여성통계연보(1997)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통계자료(표)에 근거하여 이러한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그 대신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 봄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정도가 변화하였는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2-3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던 1960년대까지 만 해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M자형 패턴은 그다지 뚜렷한 특징은 아니었다. 이 때까지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30%대)과 함께 20대 후반의 단절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단절이 미미한 것은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커서,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농어업부문의 무급가족 종사자로 참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

다면, 달리 말해서, 합계출산력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출산터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은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가사와 양육의 부담이 큰 시기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활동참가를 억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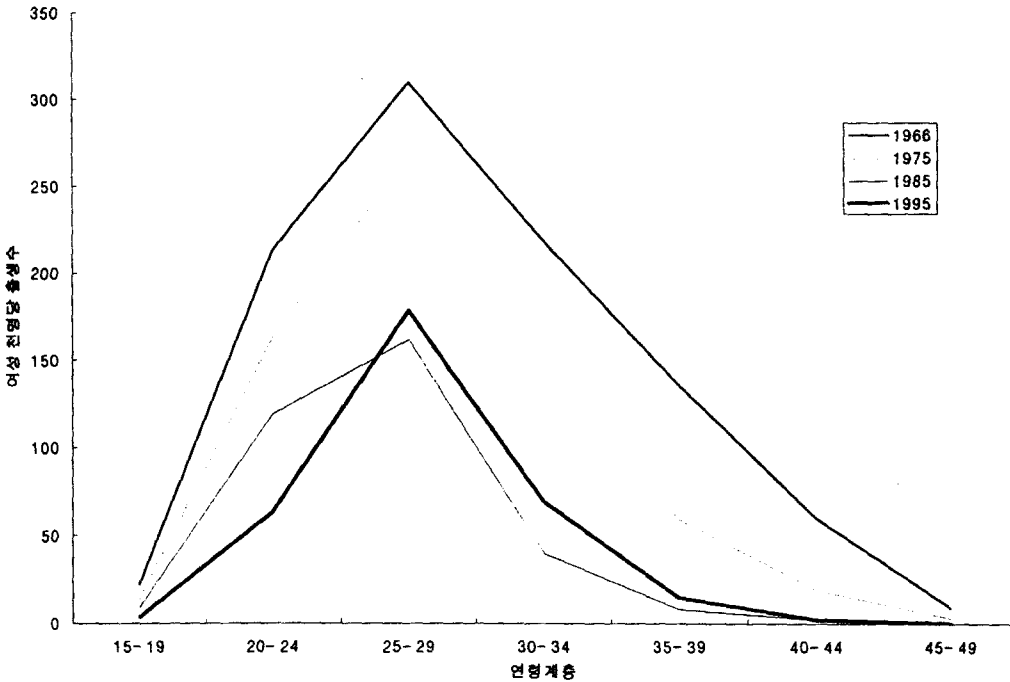
(그림 2-3) 년도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여성통계연보 (1997)

들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20대 초반과 30대 후반 이후에도 그다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초혼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20대 초반부터 결혼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이 있었고, 자녀의 수가 많아서 늦게까지 그 제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대 초반과 40-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쌍봉 사이의 골은 깊어져 갔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만을 놓고 본다면, 1960년대에서 1980년까지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출산과 양육시기 여성의 참여율 증가를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의 감소'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기는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 연령층 여성의 참가율의 증가가 M자형 패턴 자체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이래로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20대 초반과 40대라는 경제활동참여율이 최

(그림 2-4) 연령계층별 출산율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여성통계연보 (1997)

고조에 달하는 두 연령층 여성의 취업구조 상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20대 초반은 대다수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사무직, 생산직에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서, 30대 후반 이후의 여성들은 주로 농림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구성원이 전혀 다른 두개의 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1990년대 들어서 관찰되는 중요한 변화의 조짐은 경제활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연령계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옮겨가는 듯한 경향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출산 연령의 상승 추세와 관련된 듯 하다. 연령계층별 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4), 1960년대에서 1985년까지는 출산율의 감소가 주로 3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졌으나 1990년대는 20대 초반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대신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자녀 수 자체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다가 1990년대에는 자녀 출산 연령의 증가 또는 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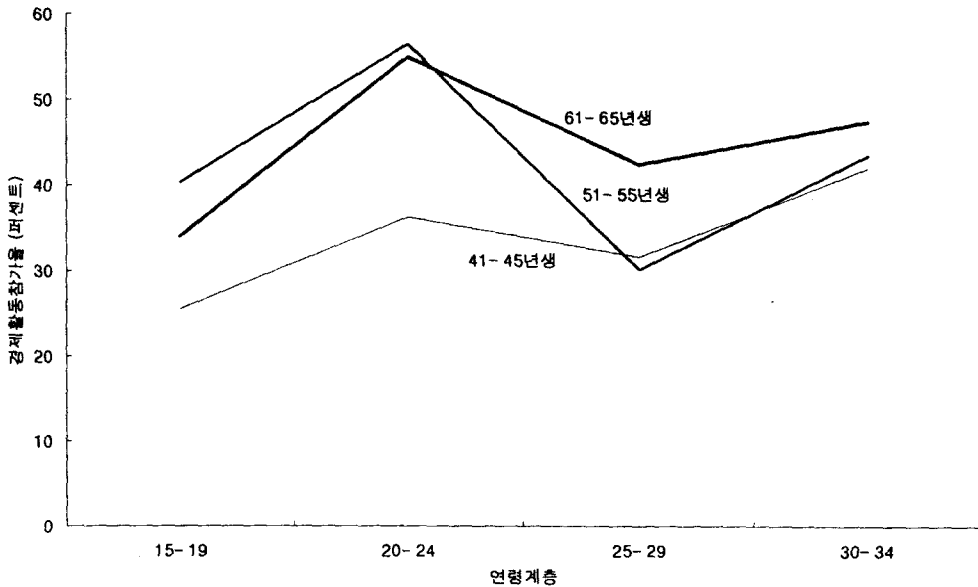
코호트 여성의 출산 연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쨌든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이 연령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특정 연령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만 살펴보아서는 출산의 영향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변화하는 추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보다 조금 나은 방법은 '연령세대별 분석(cohort analysis)'을 통하여 하나의 코호트에 속한 여성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을 지나면서 어떤 경제활동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코호트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림2-5에 따르면, 1941-45년생 여자의 경우 20대 내내 낮은 경제활동참여를 나타낸다. 반면, 1951-55년생 여자는 20대 초반에는 그들의 10년 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참가율을 보이지만 20대 후반에는 거의 비슷한 참여율을 보인다. 여기까지는 1951-55년생 여자의 경우 출산 자녀의 총 수가 줄어들면서 출산과 양육의 시기가 20대 후반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1-65년생 여자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전 시기에서 그들의 20년 전 세대의 여자보다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내포한다. 출산자녀의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이제는 출산 자체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예측 가능했던 현상이다. 첫째, 노동력 수요의 측면과 제도적 변화의 결합이다. 우리나라가 20여년의 장기 경제호황을 누리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고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와 영유아 보육기관의 확대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고용의 단절, 노동시장 퇴출을 경험하던 연령층의 여성이다. 둘째, 노동력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 생애기간 중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강도 높게 요구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임금노동기간이 길어진다면, 생애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후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력의 단절을 피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연령계층별 종사상의 지위와 직업구성을 보여주는 그림2-6와 2-7에 의하면, 연령계층에 따라서 경제활동상태가 달라질 뿐 아니라 여성 취업자의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지만, 그 양상은 1985년에서 199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종사상의 지위

(그림 2-5) 코호트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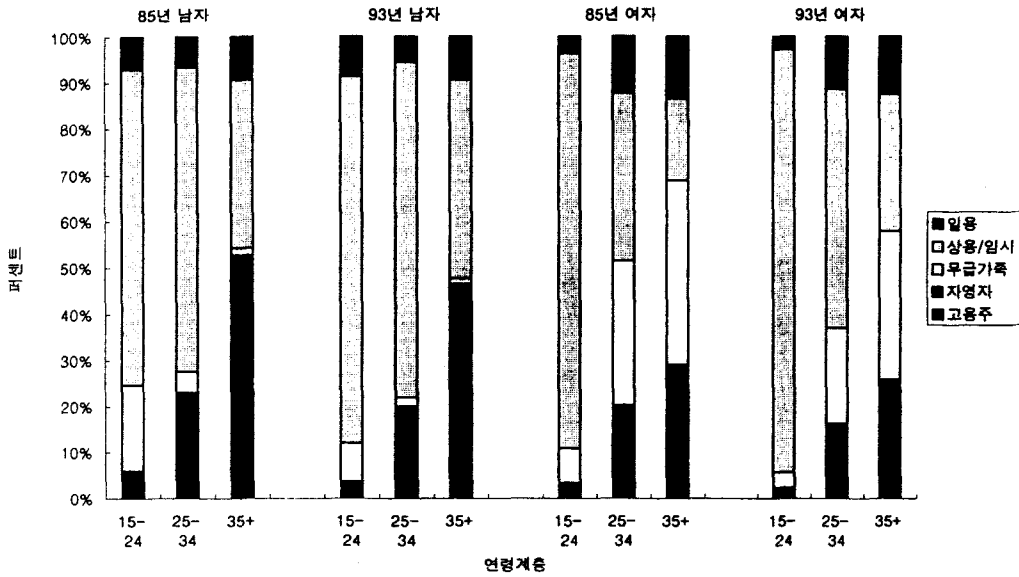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여성통계연보 (1997)

를 놓고 볼 때 (그림 2-6), 남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크다가 35세 이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 패턴은 1985년과 1993년 사이에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여자의 경우, 15-24세 때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 그 중에서도 상시고용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러다가 25-34세 이후에는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자의 비중이 커진다. 1993년에도 이런 유형이 대체로는 유지되지만 25세 이후 상용고에 있는 비율이 1985년 보다 커졌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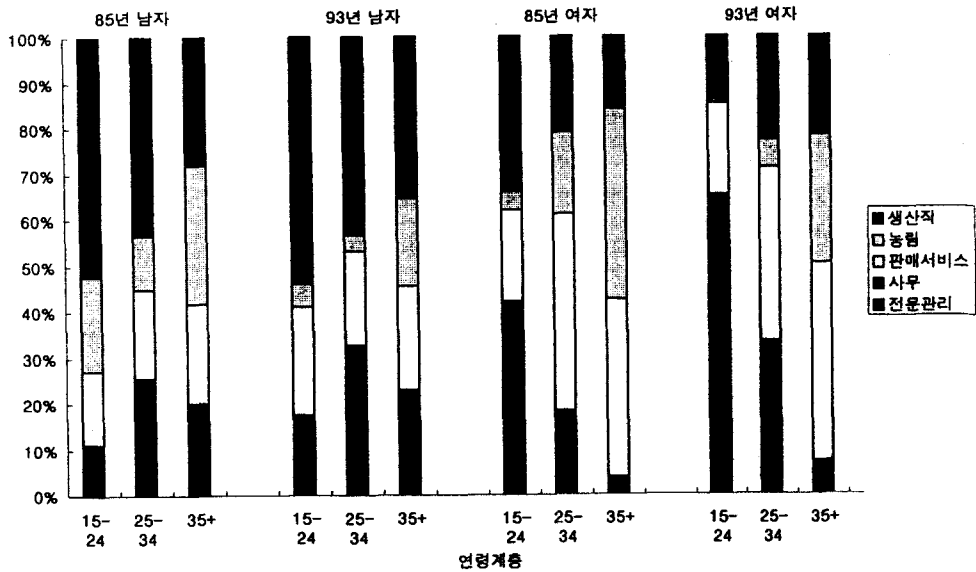
그림2-7에 따르면, 1985년에는 15-24세 연령층 여자의 직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역할의 영향을 크게 받는 25-34세를 기점으로 직업구성이 크게 달라져서 농림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이 전체 여성 취업자의 약 60%가 된다. 35세 이후에는 80% 이상이 이 직종에 종사한다. 1993년에는 15-24세 연령층은 1985년에 비해서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25-34세에 가서는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도 1985년에 비해서 고연령층에서도 생산직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즉, 30

(그림 2-6) 연령계층별 종사상의 지위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그림 2-7) 연령계층별 직업구성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대 후반 이후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요약하자면, 그림2-3과 2-4는 우리나라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은 아직까지 노동시장 경력의 단절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림2-5와 2-6, 2-7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행위양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2. 결혼과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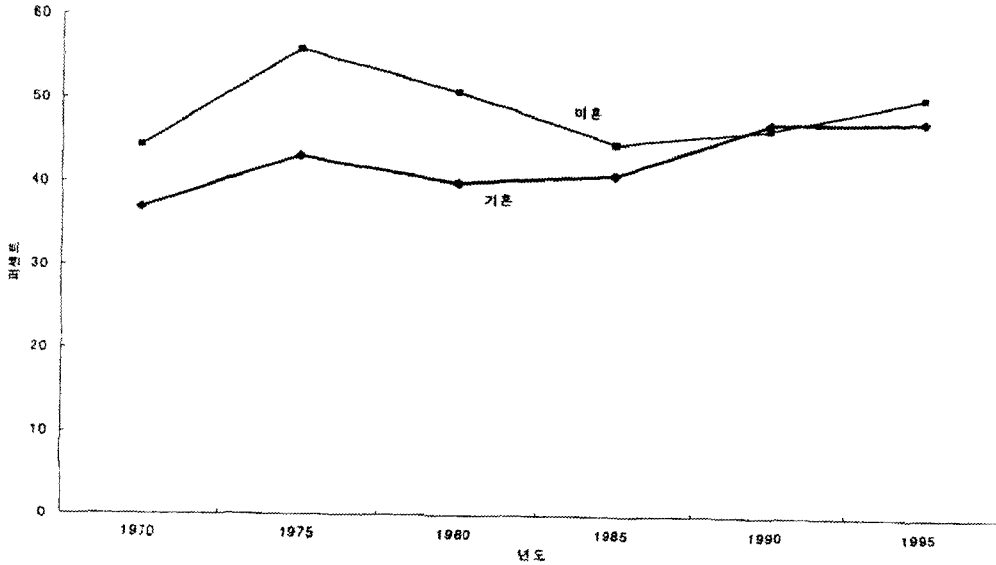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60년에 21.5세에서 1995년에 26세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1980년대까지 만 해도 미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기혼여성의 참가율보다 높았으므로 초혼연령의 상승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만혼의 추세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초혼연령이 상승하더라도 연령별 인구구조(인구 피라미드)가 항아리형을 띠고 있다면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1982년 이후의 자료는 이 기간동안 초혼연령이 상승하였지만 경제활동가능인구(15-65세) 중에서 미혼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청, KOSIS).

그 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혼인상태가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본 그림 2-8에 따르면, 1985년까지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기혼여성의 참가율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요약하자면, 여성 경제활동가능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켰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 그보다는 혼인상태별로 나눈 각각의 그룹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이끌었다.

3.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교육수준의 향상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도 인구의 학력별

(그림 2-8)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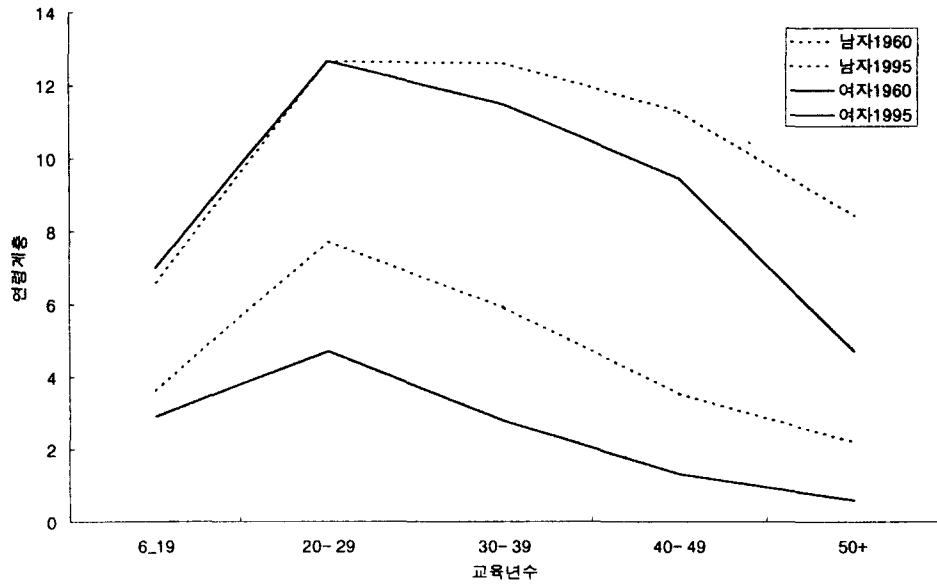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구성의 변화와 동일한 학력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960년에 3년에서 1995년에는 9.3년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86, 1997). 연령계층별로는 주 노동력 계층인 20-40대의 경우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의 증가가 남성의 평균 교육년수의 증가보다 크고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여성의 증가추세가 커서 1995년에 30세 미만의 남녀간 교육수준의 격차는 없다 (그림 2-9). 이것은 1960년에 20대에서 남녀간에 약 3년 이상의 교육년수의 격차가 벌어지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한 변화이다. 즉,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여성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구성을 살펴볼때,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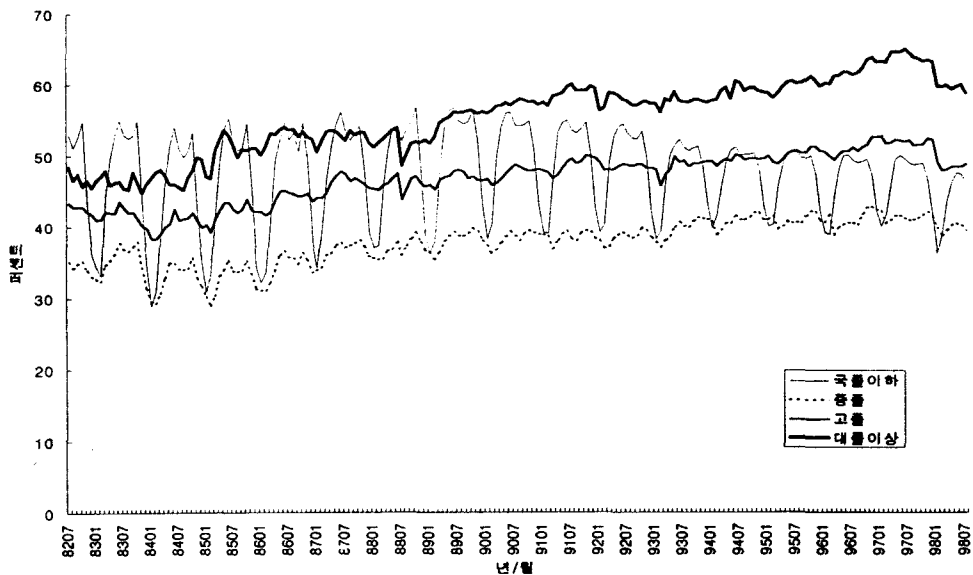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그림2-10), 남성의 경우는 불취학이나 초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률은 낮아졌으며, 중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취업비율은 증가하였고,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약간 낮아졌으나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불취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력수준의 여성인구에서 취업자비율이 높아졌다. 달

(그림 2-9) 연령별 평균교육년수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여성통계연보 (1997)

(그림 2-10)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 원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1982년 7월- 1998년 7월)

리 말하자면, 1970년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더 낮았으나, 1995년에는 중고등학교나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으로써 고학력일수록 덜 취업하는 경향은 거의 사라졌다.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5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뚜렷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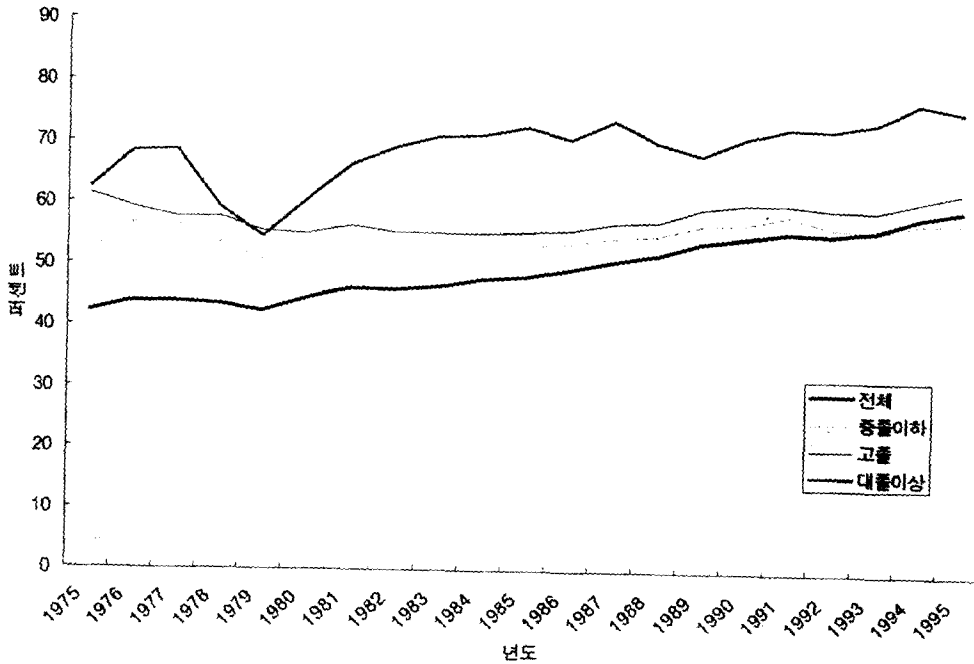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학력을 기준으로 여성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때, 지난 30여년동안 고학력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이 추세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과정은 아니었지만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르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에 고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들이 젊은 여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연령을 통제한다면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즉,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연령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최근 1년간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력참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검토한 출산력 변화와 교육수준의 증가 등이 노동력참여를 공급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중요한 축은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노동력 수요의 측면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지난 3-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점, 따라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남성노동자의 임금의 상승보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더 빠른 추세로 증가해왔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1).⁵⁾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림어업 분야의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요약되는데 여성의 경우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3-2, 3-3). 여성 취업자 중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 그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광공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까지는 비교적 정체를 보여서 여성 취

〈그림 3-1〉 남자대비 여성의 임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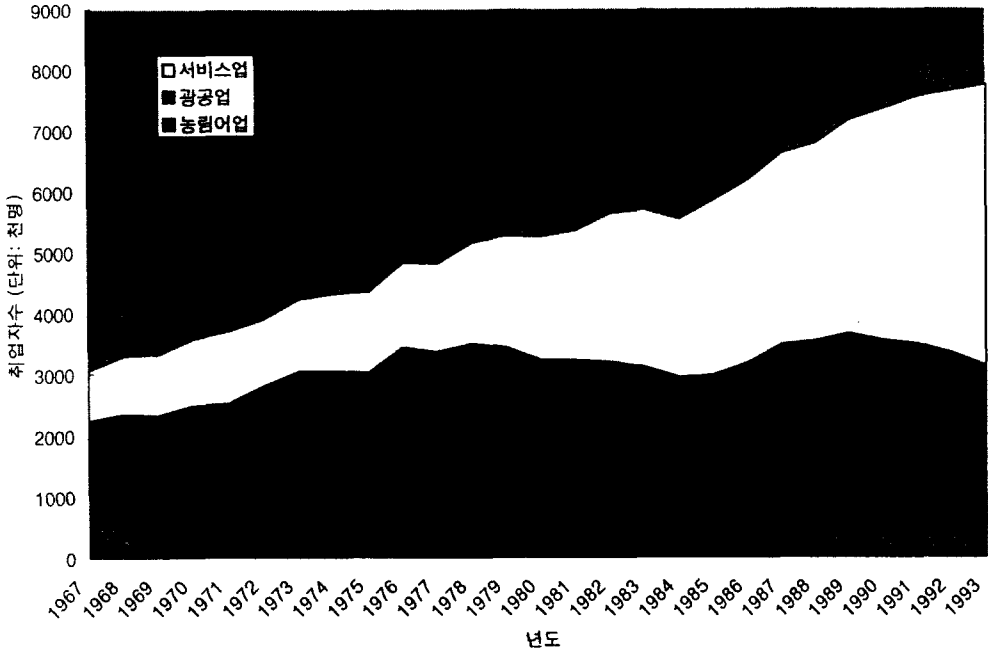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 원 자료는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각 년도)

업자 중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어수봉(1991)이 관찰한대로 1980년대 말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1990년대 서비스업의 확대에 따라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성취업자 중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이 감소 추세는 전체 농업인구의 비중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오히려 그 감소 추세는 약한 것이어서 1967년에는 전체 농업인구에서 여성인구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절반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 5) 1975년에 여성취업자는 남성취업자 임금의 42 퍼센트를 받았었는데 1995년에는 60 퍼센트까지 증가하였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임금노동에 참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와 달리 여성의 취업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평균임금과 남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자의 경우, 과거에는 학력과 경제활동참여가 부의 관계를 갖다가 (저학력일수록 더 많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더 커졌다면 임금의 상승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력을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남자 대비 여성의 임금은 상승해왔다.

〈그림 3-2〉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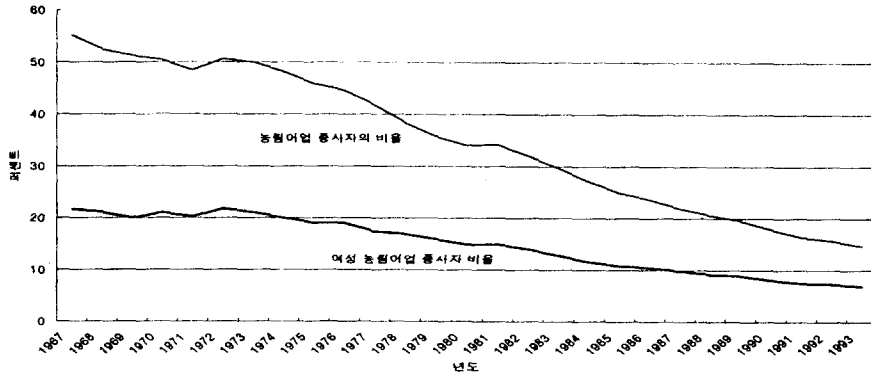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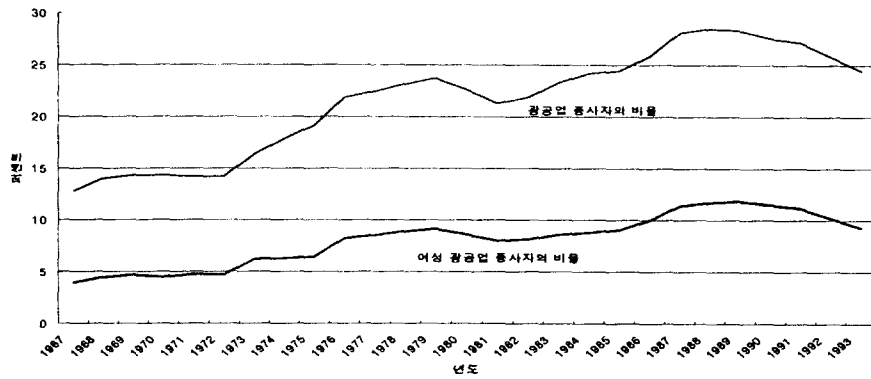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더라도 순환적인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속도를 가속화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출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경제적 사회적 동향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즉, 경제의 구조조정국면이며 경기는 불황일 때, 여성이 경제활동 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경기순환에 따라 변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추가 노동력 (added worker)” 가설은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남편의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실망 노동자 (discouraged worker)” 가설은 실업률이 높은 시장 조건하에서는 취업을 희망했던 여성들 중 많은 사람이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설이 불황 때에 고학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일차적 노동자군 (primary workers)과 저학력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차적 노동자군 (secondary workers) 중에서 누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받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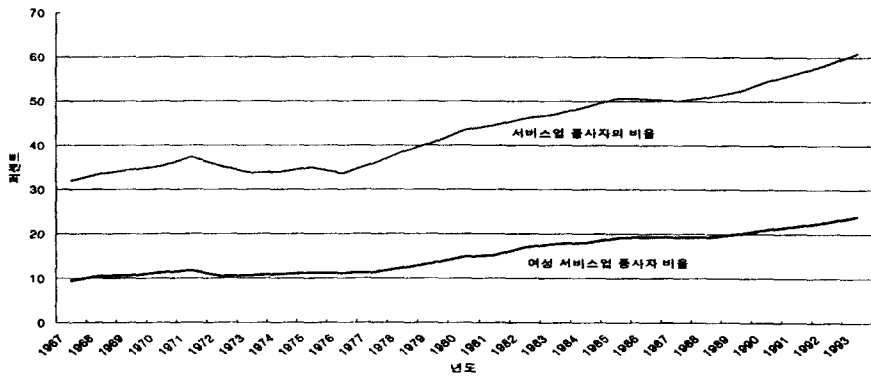
(그림 3-3a) 산업별 여성 비율, 농림어업



(그림 3-3b) 산업별 여성 비율, 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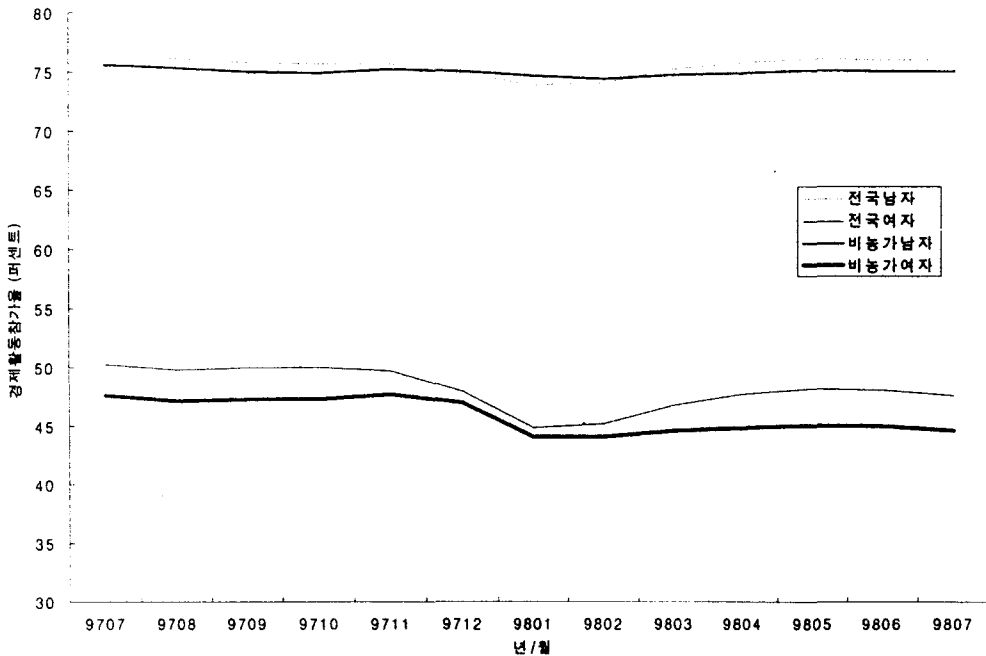


(그림 3-3c) 산업별 여성 비율,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3-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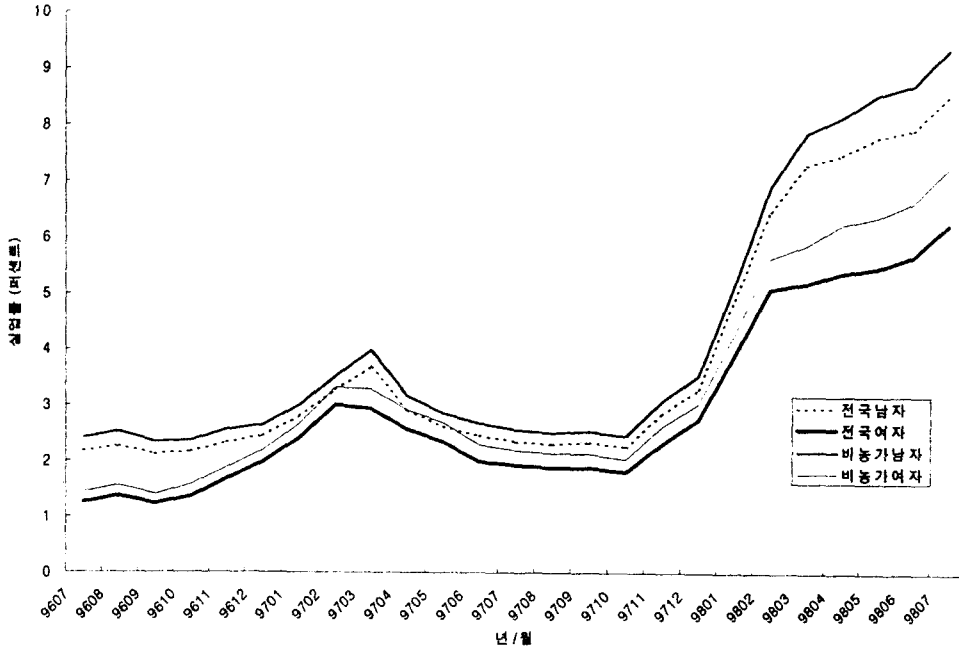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 월별자료 (1982년 7월 - 1998년 7월) 원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조사

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서로의 영향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여성의 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림3-4와 표3-2, 3-3에 따르면 1998년에 들어서 남성은 취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즉, 남성은 취업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실업상태로 경제활동인구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취업자 수의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대량 해고와 고실업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단순히 경기순환과정의 하강국면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정이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방향성을 지닌 고용구조조정의 시기이므로 최근 여성노동자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만을 가지고 '실망노동자' 가설과 '추가

〈그림 3-5〉 성별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 월별자료 (1982년 7월 - 1998년 7월) 원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력' 가설을 곧바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찰은, 여성의 경우는 경기의 하강국면에서는 '실망노동자'로 역할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연령계층별, 학력별,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았다. 산업별로 볼 때 (표3-4), 광공업(제조업)에서 취업자의 절대 수는 남자가 더 많이 줄었지만 원래 인원수를 고려한 감소의 폭은 여자가 더 크다. 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취업자수의 감소 추세가 더 뚜렷할 뿐 아니라 감소 폭도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에서 여성취업률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직종별로는(표3-5), 전문직과 농림어업직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뚜렷한 감소세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생산직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감소하였다. 사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여성 취업자의 감소가 현저한 반면, 남성은 그 절대 수는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종사상

표3-1.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자수의 변화

단위: 천명, %

	남자			여자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15-19	171	146	-14.6	250	196	-21.6
20-24	741	541	-27.0	1217	964	-20.8
25-29	1797	1614	-10.2	1088	1006	-7.5
30-34	1900	1779	-6.4	942	854	-9.3
35-39	1977	2025	2.4	1158	1174	1.4
40-44	1638	1658	1.2	1118	1080	-3.4
45-49	1286	1232	-4.1	823	779	-5.3
50-54	1048	993	-5.2	654	606	-7.3
55-59	879	826	-6.0	621	559	-10.0
60+	1145	1101	-3.8	937	868	-7.4

표 3-2. 성별 학력별 취업자수의 변화

단위: 천명, %

	남자			여자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초졸이하	1803	1552	-13.9	2605	2255	-13.4
중졸	1979	1573	-20.5	1534	1314	-14.3
고졸	5787	5452	-5.8	3353	3133	-6.5
대졸이상	3010	3338	10.9	1316	1382	5.0

표 3-3. 성별 산업별 취업자수의 변화

단위: 천명, %

	남자			여자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농림어업	1282	1360	6.1	1265	1292	2.1
광공업	2901	2492	-14.1	1574	1288	-18.2
제조업	2874	2473	-14.0	1572	1287	-18.1
서비스업	8397	8063	-4.0	5969	5504	-7.8
도소매업	2168	2165	-0.1	1760	1654	-6.0
숙박음식업	587	583	-0.7	1288	1165	-9.5
금융보험업	326	364	11.7	440	407	-7.5
기타서비스	480	482	0.4	474	425	-10.3

표 3-4. 성별 직종별 취업자수의 변화

단위: 천명, %

	남자			여자		
	97. 7	98. 7	증감률	97. 7	98. 7	증감률
고위임직원, 관리자	511	485	-5.1	24	31	29.2
전문가	677	759	12.1	330	359	8.8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15	1463	-3.4	698	675	-3.3
사무직원	1193	1256	5.3	1383	1129	-18.4
서비스, 판매 근로자	1903	1948	2.4	2972	2780	-6.5
농어업 숙련근로자	1244	1312	5.5	1183	1221	3.2
기능근로자	2471	1888	-23.6	707	574	-18.8
기계조작원, 조립원	1896	1791	-5.5	297	265	-10.8
단순노무직 근로자	1171	1014	-13.4	1214	1050	-13.5

표 3-5.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의 변화

단위: 천명, %

	남자			여자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97년 7월	98년 7월	증감률
고용주	1333	1171	-12.2	323	248	-23.2
자영업자	2944	3037	3.2	1483	1321	-10.9
가족종사자	192	234	21.9	1765	1885	6.8
상시근로자	7027	6578	-6.4	4328	3798	-12.2
일용근로자	1085	895	-17.5	909	831	-8.6

의 지위 면에서 볼 때는 (표3-6), 남성 자영업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는데 비해서 여성 자영업자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고용주의 수는 남녀 모두 줄어들었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남녀 모두 줄어들지 않았다.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여성이 더 뚜렷이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의 수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뚜렷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첫째,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과, 둘째,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주된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행위양식 자체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최근 경기침체가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은 비취업상태에 있을 때, 남성과는 달리 실업상태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게 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높아지면 여성은 남성보다도 더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는 '실망노동자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볼 만 하다.

취업자의 특성별로 볼 때, 20-24세의 여성 즉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의 경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저학력일수록 취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이탈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등 취업자 중 여성비가 높은 산업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탈율이 크다. 이것은 여성이 많이 진출한 산업이 경기침체에 취약하여 더 민감하게 그 취업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안에서도 여성 취업자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별로 보더라도, 사무직과 서비스직 등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에서 그렇지 않은 전문직, 생산직에서보다 직업을 이탈하는 여성의 수도 많고 남자에 비해 상대적인 비율의 감소 폭도 크다. 1998년 들어 사무직과 서비스직 취업자의 감소는 거의 대부분 여성 취업자의 감소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태홍(1993a)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1993b)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1996) “여성의 생애 노동시장참가 현황과 과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노미혜(198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어수봉(1992)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 정진화(199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의 변화》
- 통계청(1997)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 통계청(1997)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1997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조사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통계연보》
- Becker, G. (195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cker, G. & Lewis,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s279-s288.
- Becker, G.S.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The Univ. of Chicago Press.
- Becker, G.S.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 Press.
- Bianchi, S. & Spain, D. (1986). *American Women in Transi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lau, D. & Robins, P.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 287-299.
- Blau, F. & Ferber, M. (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New

- Jersey: Prentice Hall.
- Cain, G.G. (1966).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An Economic Analysi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Cain, G.G. & Dooley, M.D. (1976). "Estimation of a Model of Labor Supply, Fertility, and Wage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s179-s199.
- Connelly, R. (1992).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83-90.
- Cramer, J.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67-190.
- Dewit, D. (1997). *Determinants of the Timing of Labor Force Transitions among Ever-Married, Ever-Worked, Women in Canada*.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 Ontario, Canada.
- England, P. & Farkas, G. (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A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iew*. New York: Aldine de Gruyter.
- Fleisher, B. & Rhodes, G.Jr. (1979). "Fertility, Women's Wage Rates, and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s Review*, 69, 14-24.
- Heckman, J. (1974). "Effects of Child-Care Programs on Women's Work Effort. In T. Schultz" (Ed.). *Economics of the Family* (pp. 491-52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ckman, J.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3.
- Heckman, J. (1979). "New Evidence on the Dynamics of Female Labor Supply." In C. Lloyd, E. Andrews & C. Gilroy (Eds.). *Women in the Labor Market* Columbia Univ. Press
- Heckman, J. (1980).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with an Application of Labor Supply Functions." In J. Smith (Ed.).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Univ. Press
- Heckmann, J. & Willis, (1977). "A Beta-logis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Sequential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1, 27-58.
- Hout, M. (1978). "The Determinants of Marital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1968-

- 1970: Inferences from a Dynamic Model." *Demography*, 15-2, 139-160.
- Killingsworth, M.R. (1981). "A Survey of Labor Supply Models: Theoretical Analyses and First-Generation Empirical result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4, 1-64.
- Killingsworth, M.R. & Heckman, J. (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O. Ashenfelter &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Klerman, J. & Leibowitz, A. (1994). "The Work-Employment Distinction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2,
- Klerman, J.A. & Leibowitz, A. (1990). "Child Care and Women's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merican Economics Review*, 80,
- Lehrer, E. & Nerlove, M. (1981). "The Labor Supply and Fertility Behavior of Married Women."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3, 123-145.
- Lehrer, E. & Nerlove, M. (1986).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81-204.
- Mincer, J. (1962). "Labor-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H. Lewis (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incer, J. (1963).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C. Christ (Ed.). *Measurement in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ncer, J. (1966). "Labor-Force participation and Unemployment: A Review of Recent Evidence." In R. Gordon & H. Gordon (Eds.). *Prosperity and Unemployment* New York: John Wiley
- Mincer, J. (1968). "Trends in Labor-Force Participation." In D.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pp. 474-481). New York: Macmillan
- Mincer, J. (1969).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 A Study of Labor Supply."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Mincer, J. (1982). "Interrupted Work Careers: Depreciation and Restoration of Human Capit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 1-23.
- Mincer, J. (1993). *Studies in Labor Supply*.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ncer, J. & Polacheck, S. (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In T.W. Schultz (Ed.). *The Economics of Famil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oen, P. (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In G.Jr. Elder (Ed.).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Cornell University Press
- Nakamura, A. & Nakamura, M. (1991). "Children and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of Econometric Approaches." In J.et.al. Siegers (Ed.). *Female Labo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Springer-Verlog
- Nakamura, A. & Nakamura, M. (1991). "Models of Female Labour Market Suppl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f Children." In J. Siegers, J. de Jong-Gierveld & E. van Imhoff (Eds.). *Female Labou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Springer-Verlag
- Nakamura, A. & Nakamura, M. (1992). "The Economics of Female Labor Supply and Children." *Econometric Reviews*, 11-1, 1-71.
- Schultz, T. (1973). "The Value of Children: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s2-s13.
- Schultz, T. (1974). "Fertility and Economic Values." In T. Schultz (Ed.). *Economics of the Family* (pp. 3-2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ltz, T.P. (1978). "The Influence of Fertility on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Simultaneous Equation Estimate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2, 273-351.
- Smith, J. & Ward, M. (1985). "Time-Series Growth in the Female Labor F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s59-s90.
- Smith, J. & Ward, M. (1989).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in the Famil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 9-23.
- Sweet, J.A. (1973). *Women in the Labor Force*. New York: Seminar Press.
- Willis, R. (1973).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s14-s64.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on the Change of Female Labor Market.

Ji-Yeun Chang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female labor market structure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focusing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such as declining fertility and increasing educational attainment of women. Women of the recent cohort tend to postpone their first marriages, to attain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to have smaller number of children than women of the old cohort. This demographic trend results in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compositions in a way that population subgroups with hisgh labor force participation have been increased. In addition, women of each population subgroup supply their labor in the market with higher rate than their old cohort counterparts.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highly educated women, and of married women has been increased faster than that of women with low education and of unmarried women. Although childbirth is still one of the most critical barrier for the women's participation, more and more women with young children tend to work for pay than ever before. In spite of the demographic change which is supportive to the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Korean labor market have lost its female participants for the last year of the economic restructuring, reflecting demand-side factors as well as demographic factors are essential to determine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Key words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employment status,
demographic factors, population composition, behavioral change